

문재인 전 실장 盧 사저에... 소환 대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주 초로 예상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 소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책도 보고 돌아가는 상황도 지켜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출두를 위한 사전 출발에서부터 실제 조사 등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면서 행여라도 빠뜨리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盧 전대통령 수사 예의주시...책 읽으며 '정중동'

문재인 “노건호 지분 이미 정리 이번 일과 무관”

현재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가 전담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경우 정재성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에 적을 두고 있고, 정 변호사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의 사위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에서 충분한 해명은 하겠으나 실제 진술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 전 대통령 측 시각이다.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 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돈이 전달된 시점에 자신이 몰랐다는 입장 외에 더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

또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500만 달러를 연철호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 역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3월 여야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어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변호사는 50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 건호씨가 ‘엘리쉬&파트너스’의 대주주로서 관여했다는 검찰 측 시각에 대해 “한때 지분을 가졌다가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에서는 정면돌파를 마다하지 않는 노 전 대통령의 성격상 비공개 소환보다는 공개소환에 무게를 두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박 회장과 대질신문도 먼저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美-필리핀 합동군사훈련 반대” 16일 필리핀 마닐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미국-필리핀 연례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北과 직접대화 불가피”

타임, 北에 경제원조·안보보장 등 양보책 필요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직접 대화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15일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상태다.

안보리는 제재 수준을 놓고 각국간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 애초 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라는 사실은 미국 국무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돼온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로 나섰다는 방침을 밝힌 뒤 “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안되는가”라는 문

제의의 공감대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6자회담을 거부한 상황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절한 타이밍 조절과 북한에 제공할 당근책 제시다.

타임은 양자간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포기를 대가로 경제원조와 안보보장,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양보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무부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입장은 이 같은 양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하리라 것이다.

/연합뉴스

DJ, 14년만에 고향 찾는다

24일 신안 하의도 방문



목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고향 하의도는 찾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하의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살다가 목포로 전학을 갔다. 현재 하의도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복원돼 있다. 생가와 관리동, 횃간, 소금전사관, 화염(불에 구운 소금) 제조공장 등 모두 5채로 이뤄진 초가집이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보기 위해 하의도에는 연간 2천명에 달하는 의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14년만에 자신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한다.

1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23일 함평군에서 열리는 나비축제를 둘러보고 목포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인 24일 신안 하의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김 전 대통령 내외는 신안 하의도도 농민운동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한 뒤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6년 10월 ‘제2의 고향’인

박지원 “대북특사 가고 싶다”

김정일 만나 남북 관계 돌파구 열 터



행하지 못한다는 말에 북한이 무산시켰으며, 당시 ‘초청이 살아 있으니 꼭 방 문해달라’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전갈이 있었다”며 “이제는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자씨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남은 4년 임기를 함께 할 측근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그러면 과거 대북특사 경험이 있던 저도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6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방북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목포 문화체육센터에 열린 서남권 아카데미 초청강연에서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과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이 ‘이미자 선생의 공연을 본 후 좋으면 민민에게 공개하고, 장관 선생 내외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자’며 우리 부부와 이미자씨를 평양으로 초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01년 모 방송사가 이미자씨의 평양공연을 추진했으나 우리 부부가 사정상 동

정부 “PSI 참여 발표 연기는 전략적 시기조절”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급주 말로 전격 연기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깊은 고심이 배어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당장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 명분 조성과 남북 현안, 발표 효과의 극대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했고,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의 결심이 큰 영향을 미

쳤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시기를 놓고 강은 기류가 교차하자 ‘전략적 시기조절’ 필요성을 주문하며 온건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역시, 김영"

광주분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점빌서 투 | 222-6388]

면입영어 전문강좌

김영 TEST

대한민국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면입영어 전문강좌

남성강한 힘

자신감을 위한 30-40대 남성들 위한 남성기력증진제 약제 '엑스스'

- ▶ 면역체계를 높여준 남성 활력약
- ▶ 강한 힘, 절하는 자신감
- ▶ 현명성능제거로 안심하고 섭취

신체약제
TEL: 060-8388-3000
11월 17일 10:00 - 11월 17일